주·야간보호센터 061)394-0123
신세계요양원
061-395-2580 장성읍 방울샘길 12
(장성읍 영천리 1493-5)

호남신문

호남신문 자매지 국민복지신문 2010년 8월 30일 창간

(대표전화) 062-229-6000 1946년 10월 26일 창간 i-honam.com 제 3326호 (음력 3월 20일) 2022년 4월 20일 수요일

"목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코로나19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XM·XE 국내 첫 발견

"국내 발생 가능성 충분히 높아…모니터링 강화 예정"

코로나19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인 'XL'에 이어 'XE'와 'XM' 감염자도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다. 'XL' 변이의 경우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확진자 13명이 파악됐다.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9일 주요 변이 바이러스 분석률 및 검출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XE 변이 2명, XM 변이 1명 감염자가 새롭게 확인됐다. XE 변이는 3월27일 영국발 입국자 1명과 지난달 30일 확진된 국내 발생 확진자 1명으로부터 각각 확인됐다.

XM 변이는 3월27일 확진된 국내 발생 확진자로부터 발견됐다. 3명의 연령대는 20대, 50대, 60대 각각 1명이고 모두 격리가 해제된 상황이다. 당국은 확진자를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XE형과 XM형 1건은 국내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말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XE 변이는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약 10% 빠른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1월 이후 영국, 미국, 아일랜드 등 4개국에서 489건이 확인됐다.

XM 변이는 특성에 대한 보고는 아직 없으며 2월 이후 독일과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8개국에서 32건이 파악됐다. 이 단장은 "XE, XM 등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는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오미크론으로 분류하고 있어 특성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전파력과 중증도 등 분석 자료가 부재해 계속 변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지난주 XL 변이에 이어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3종의 유입이 파악됐다. XL변이 확진자의 경우 동거 가족 2명과 직장 동료 11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당국은 13명을 1차적인 역학적 관련 사례로 보고 조사 중이다.

김재환 기자

장성군수 후보적합도 김한종 30.5%·유두석 28.4%…오차범위 접전

코리아정보리서치

호남신문의 의뢰로 (주)코리아정보리서치에서 4월 18일 장성군 내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장성군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장성군수 출마예정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이 30.5%로 오차범위내에서 선두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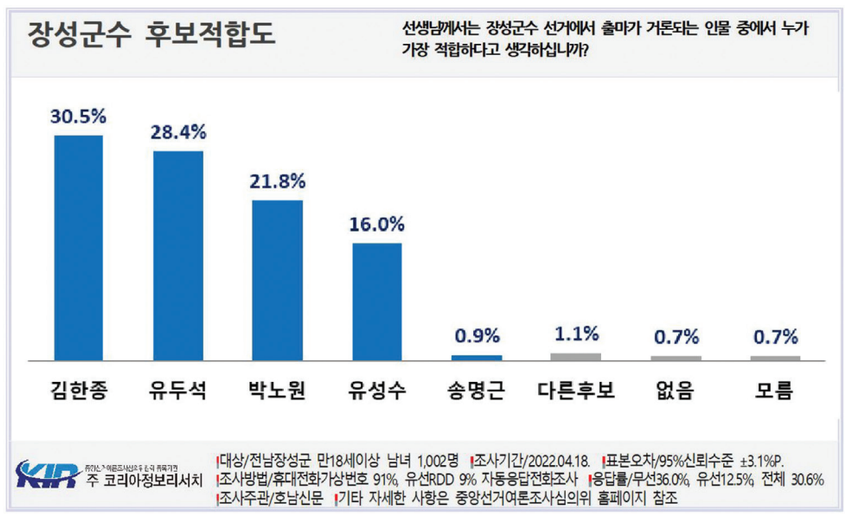
장성군수 출마예정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김한종 전남도의장 30.5%, 유두석 현 군수 28.4%, 박노원 전 행정관 21.8%, 유성수 전 도의원 16.0%, 송명근 0.9%로 나타났다. 다른후보 1.1%, 적합후보 없음과 모름은 1.4%이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교는 오차범위내에서 혼전양상이다. 성별 비교에서 보면 남녀 모두 김한종〉유두석〉박노원 순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 적합도를 보면 김한종 후보는 30대, 40대, 60세 이상에서 앞서며, 유두석 후보는 50대에서, 박노원 후보는 20대에서 앞섰다.

지역별로 보면 제1선거구(장성읍, 서삼면, 북일면, 북이면, 북하면)에서는 유두석〉김한종 순이며, 제2선거구(진원면, 남면, 동화면, 삼서면, 삼계면, 황룡면)는 김한종〉유두석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장성군수 출마예정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김한종 후보가 33.8%로 박노원 후보 25.7% 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선두를 차지했고, 유성수 후보 20.1%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교는 오차범위내에서 혼전양상이다. 성별 비교에서 보면 남녀 모두 김한종〉박노원〉유성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적합도를 보면 김한종 후보는 30대, 40대, 60세이상에서 앞서며, 박노원 후보는 20대와 50대에서 앞섰다. 지역별로 보면 제1선거구(장성읍, 서삼면, 북일면, 북이면, 북하면), 제2선거구(진원면, 남면, 동화면, 삼서면, 삼계면, 황룡면) 모두 김한종〉박노원〉유성수 순으로 나타났다.



장성군수 출마 예정자(가나다순)

김한종 박노원 유두석 유성수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91%) 유선전화RDD(9%) 자동응답 전화조사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무선전화 36.0%, 유선전화 12.5%로 전체 30.6%이며,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2년 3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http://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박재범 기자

영랑생가 모란 활짝 지난 20일 강진군 강진읍 탑동마을 꽃 중의 왕 모란을 노래했던 영랑 김윤식 생가 모란이 활짝 피어 화려한 자태로 봄의 절정을 알리고 있다.

'거리두기 해제'…백신 계속 맞아야 하나

방역당국 "중증 예방에 여전히 효과"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백신 4차 접종 등 추가 접종 동력이 더욱 떨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중증 예방 효과에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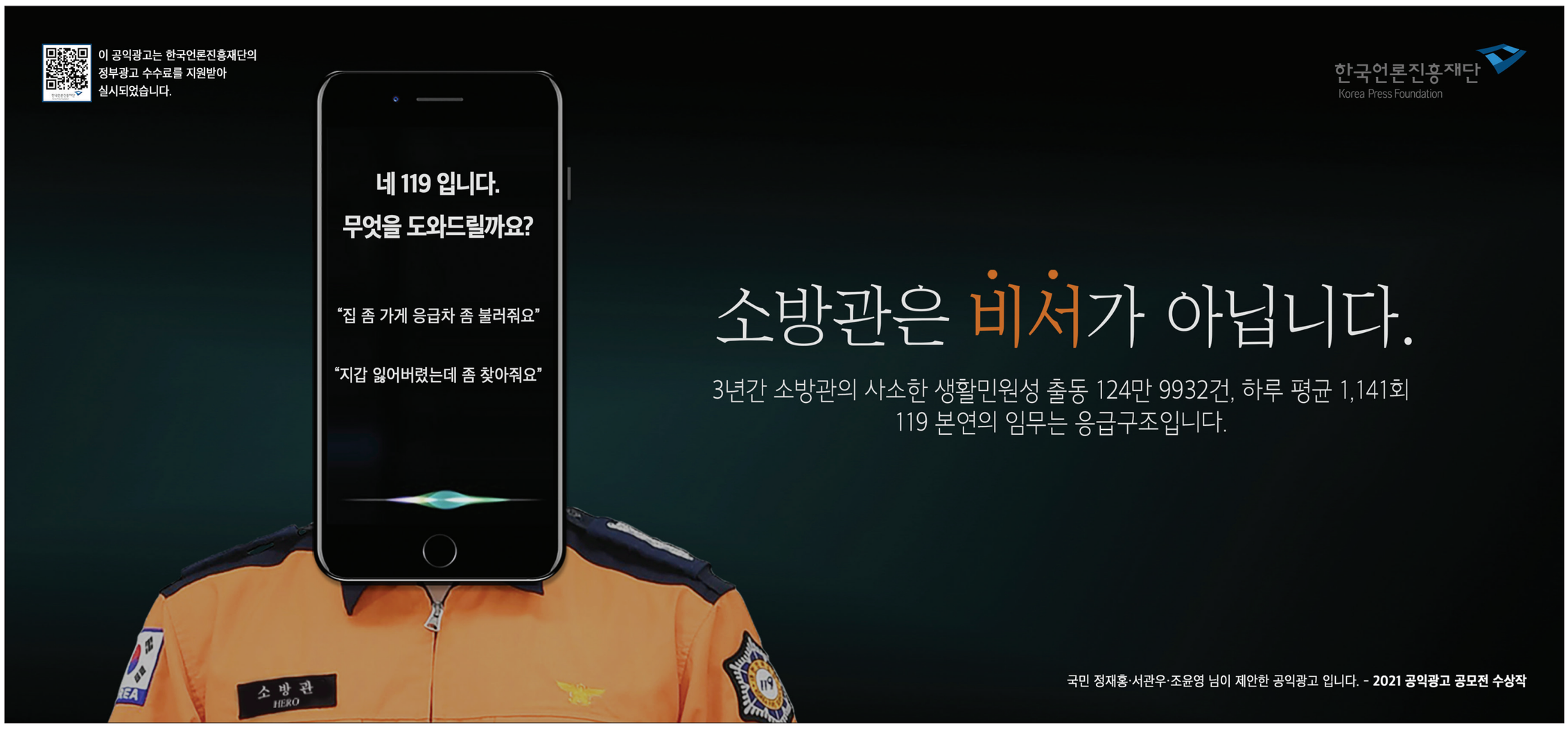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은) 감염을 예방하기보다 바이러스가 더 이상 생산되지 못하게 하는 역할로서 중증 예방에 일부 효과를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8일부터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된 가운데, 접종률은 정체를 지속하고 있다.

일각에선 백신 접종으로 면역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T세포'가 두 번의 백신 접종으로도 2년 가까이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4~5개월 단위로 접종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단장은 "지속적으로 4~5개월마다 접종한다는 그런 가정은 아직 없다"며 "지금 현재 상황에 비춰 4차 접종이 결정된 것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이어질지에 대한 여부를 지금 예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또 "T세포는 세포성 면역으로 항체를 통한 면역보다는 훨씬 더 오래간다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T세포 면역의 경우는 주로 감염된 세포를 공격해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복합적인 면역 반응을 위해 백신의 접종은 전문가들의 토의 하에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라며 추가 접종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기동취재본부